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제187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가로열쇠>

- 세포를 구성하고 생체 내 물질대사의 촉매 작용을 하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물질로서, 사람의 3대 영양소(탄수화물, OOO, 지방) 가운데 하나이다.
- 베개의 겉을 덧싸는 천.
- 일 따위를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 그는 워낙 OOO라서 제시간에 일을 끝낸 적이 없다.
- 몸이 몹시 피로하여 일어나는 병. 팔다리가 쭈시고 느슨하며 기운이 없고 오한이 난다.
- 어린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
- 1392년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
- 깨기발. 한 발을 들고 한 발로 섬. 또는 그런 자세.
- 끝없이 사방으로 펼쳐진 넓고 큰 평평한 땅. OOOO에 건물 하나가 덩그러리게 서 있다.
- 전장에서, 구원병이 없이 고립된 군사나 군대가 많은 수의 적군과 맞서 용감하게 잘 싸움.
-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그 주의. 접근하지 말라는 OOO를 무시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감을 두고 이르는 말.
- 특정 상품을 조직적, 집단적으로 사지 않기로 함. 또는 그렇게 벌이는 운동.
-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둥글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갈 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간다.
-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

<세로열쇠>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봉우리에 있는 화구호.
-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훈연하거나 삶아 말린 식품.
- 이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살.
-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투. 부장은 OOO의 인사말로 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 매우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집 분위기가 OOOO이야."
- 곡식의 낱알을 떠는 데 쓰이는 재래식 농기구의 하나. 긴 장대 끝에 서너 개의 회초리를 매달고 이것을 휘둘러 낱알을 떨어내도록 만든다.
-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
-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수사나 기소를 요구함.
- 아무렇게나 마구 되는대로. "숙제를 그렇게 OOO해서 되겠니?"
- 흙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나무나 풀이 없는 산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군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임무를다하는 일.
- 큰 돌을 몇 개 돌려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선사 시대의 무덤.
- 사람의 시체를 묘지까지 실어나르는 용구. 가마같이 생긴 것으로 십여 명의 상여꾼이 메고 간다.
- 음력으로 그달의 열닷새째 되는 날.
- 우쭐하고 거만한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 여자는 OOO가 높아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곳: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정답자 발표: 1,335호



1,185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1688-8511

이성수(달성군 다사읍)
김순덕(달서구 장기로)
이순남(달서구 용산로)

최상진(달성군 화원읍)
권경락(달서구 성서서로)
오은세(달서구 송현로)

<1,185회 정답>

자	난	중	일	기	마	리
식	중	독	동	치	차	사
새	중	상	뿌	길	이	리
끼	니	아	프	리	카	클
나	중	리	레	슬	링	
추	노	랜	기			
모	피	서	지	주		
회	재	정	리	배	넷	머
정	성	인	니			

♣ 가족과 함께 풀어 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www.prsinmun.co.kr (우편번호: 42640)

- ▶등록일 2000년 10월 17일 ☑은행계좌안내
- ▶등록번호 대구다 01130 SC 제일은행 556-20-270245
- ▶간별 주간
- ▶인쇄처 미디어프린팅넷(株) 예금주: 푸른신문(김현두)
- ▶발행인 김현두 *구독료 1년 15,000원
- ▶편집인 김현두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 · 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들 까지도 읽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